

## 『法界圖記叢髓錄』 연구사와 과제\*

황서광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 국문 초록

『법계도기총수록』은 均如의 현존 저술과 함께 의상계 화엄학의 양대 문헌으로 자리매김 된다. 기존의 『총수록』연구는 세 가지 경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상 및 『법계도』사상과 관련된 연구, 둘째, 균여 사상의 역사적 배경 연구, 셋째, 『총수록』 내 특정 주제에 대한 개별 연구이다.

그동안 『총수록』연구사는 중요성에 비해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일본에서의 연구 현황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의상계의 계보 연구사가 중심이 되어 왔다. 하지만 『총수록』연구는 주제의 범위가 넓다.

『총수록』에는 三記를 포함한 32개의 인용문헌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3백여 년에 걸친 의상계 화엄학이 집대성되어 있다. 제대로 된 연구방법론 없이는 체계적인 이해가 결코 쉽지 않은 복잡다단한 문헌임에 틀림없다. 즉 시대구분 문제와 교학적 分限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는 그 실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의상계는 義湘을 친견한 제자를 사사한 손제자까지인 문답 중심의 직설시대와 그 이후인 주석서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神琳 이전과 法融 이후가 시대구분의 일차적 분수령인 것이다. 주석서시대의 세분 기준은 삼기 사상의 면밀한 연구가 전제된 교학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성기론과 교판론에 치우친 연구 주제의 편협성도

\* 본고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발췌하여 보완한 것임.

탈피하여야 한다. 특히 『화엄경』의 내적 직관의 견지에서 부처 교설의 진의를 중층적·심층적으로 꿰뚫어보려는 ‘일승론’, 진성의 해석에서 비롯되어 五海, 無側, 二十二位の 교학으로 전개된 ‘연기론’ 등은 향후 중요한 연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주제어 : 『법계도기총수록』, 의상계 화엄학, 삼기(三記), 직설시대, 교학적 분한(分限), 일승론, 연기론

## I. 연구사 개관

『법계도기총수록』(이하 『총수록』이라 한다)은 현존하는 均如(923~973)의 저술과<sup>1)</sup> 함께 의상계 화엄학의 양대 문헌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의상계 화엄학이란 義湘(625~702)의 『일승법계도』(이하 『법계도』라 한다)를 원점으로 형성된 화엄교학을 다른 계통의 교학과 구별하기 위해 현대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시기적으로는 통상 신라 의상이 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670년부터 973년 고려 균여의 입적까지 약 300년을 그 범위로 한다.<sup>2)</sup> 균여는 고려 초의 인물이지만 ‘의상의 第七身<sup>3)</sup>’이란 말이 전해질 정도로 의상을 숭배한 화엄지상주의자로서,<sup>4)</sup> 그의 저서가 신라화엄사상사 연구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의상계 화엄학승으로 분류된다.

『총수록』연구는 세 가지 경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상 및 『법계도』와 관련된 연구이다. 『총수록』가운데 의상 관련 사항을 적출하여 그의 전기를 재구성하거나, 『법계도』교설을 三記(『法記』·『眞記』·『大記』)를 통하여 해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또한 의상의 사상을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총수록』으로부터 발취·보강하는 형태도 이 범주에 속한다. 둘째, 균여 사상의 역사적 배경 연구이다. 이 역시 균여 사상을 규정한 후, 역으로 『총수록』으로부터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연구이다. 즉 균여 연구의 선행문헌으로 『총수록』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셋째, 『총수

1) 『법계도원통기』·『십구장 원통기』·『삼보장원통초』·『지귀장원통초』·『교분기원통초』.

2) 佐藤 厚 2001b, 128.

3) 『大華嚴首坐圓通兩重大師均如傳』(『韓佛全』 4, p.512下20-21), “今日講師是你先祖義相第七身也”.

4) 鎌田茂雄 1981, 21-23.

록』내 특정 주제에 대한 개별 연구이다. 그 주제는 범주화가 어려울 정도로 多岐化되어 있다. 문헌학 연구로부터 특정 인물·문헌의 사상, 교학, 계보 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실정이다. 얼핏 무질서해 보이는 이 같은 주제 선정은 연구방법론의 부재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이다.

『총수록』 연구 경향을 시기적으로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의상 관련, 개별 주제, 균여 관련 연구의 순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의상 관련 연구는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초반 坂本幸男의 선구적 연구<sup>5)</sup> 이후 공백기를 거쳐, ‘국내에서 의상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전반<sup>6)</sup>에 걸쳐 이루어졌다.’<sup>7)</sup> 개별 주제 연구는 1970년대 초반 木村清孝의 연구<sup>8)</sup>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균여 관련 연구는 199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균여 사상은 1942년 高峯了州에 의해 최초로 논해졌지만,<sup>9)</sup> 관심이 확대된 것은 1977년 김지건의 『균여대사화엄학전서』 간행과 1978년 대한전통불교연구원에서 주최한 제1회 국제학술회의가 계기가 되었으며,<sup>10)</sup> 이러한 토대 위에서 균여 사상의 역사적 배경을 탐구하는 노력으로 발전하였다.

그동안 『총수록』연구사는 그 실상과 중요성에 비해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일본의 연구 현황은 계보에 관한 자료 및 계통에 관한 학설, 의상 계통의 문헌과 사상으로 나뉘어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sup>11)</sup> 국내에서는 의상 사상의 계승 문제에만 초점을 둔 계보 연구사가 중심이 되었다.<sup>12)</sup> 하지만 의상계는 法藏(643-712)을 비롯한 여타 중국 불교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개별 연구 주제의 폭도 매우 넓다. 연구사 정리의 순서는 경향별, 연구자별, 발표시기별로 하되, 계보 연구사는 생략한다.

---

5) 坂本幸男 1935·1936.

6) 최연식 2002, 1-3.

7) 이기영 1972는 국내 최초로 『총수록』내 주석으로 『법계도』 반시의 해설을 시도하였지만, 필자 스스로 ‘학술논문이라기보다는 學的 質問의 도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遍歷의 기록’임을 밝혔다.

8) 木村清孝 1973.

9) 高峯了州 1942, 313-316.

10) 석길암 2013, 283.

11) 조윤호·사토 아츠시 2001, 47-53, 66-70 ; 김천학 2002, 201-202.

12) 최연식 2002, 7-10 ; 석길암 2013, 305-306.

## II. 의상 및 『일승법계도』 관련 연구

『총수록』이 연구대상으로 주목받은 것은 『大正新脩大藏經』(이하 『대정장』이라 한다)에 入藏되고나서부터이다. 현재 불교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대정장』은 高楠順次郎(1866~1945) 등을 중심으로 1922년부터 1934년까지 13년간에 걸쳐 완성한 것이다. 『대정장』에는 日帝 强占 下에 있던 한반도에서 발견된 전적도 수록되었고, 『총수록』도 그 중 하나였다.<sup>13)</sup>

하지만 『총수록』은 『법계도』주석서의 모음집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단독으로 연구되기보다는 『법계도』연구의 부속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총수록』에 대한 문헌학적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 1. 坂本幸男의 연구

1934년과 1935년에 坂本가 발표한 논문은<sup>14)</sup> 이후 『법계도』 연구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수록』 활용의 시초가 되었다. 두 논문은 자신의 저서에 재수록되었다.<sup>15)</sup> 그는 의상의 교학을 略傳 및 저서, 교판론, 원리론, 실천론으로 나누어 智儼(602~668)과의 관련 아래 고찰하였으며, 『총수록』도 인용하였다.

약전 및 저서에서는 『古記』로부터 총장원년 10월11일 淸禪寺般若院에서 지엄이 의상에게 十重總別을 설한 사실, 『道身章』으로부터 지엄이 의상에게 꿈의 비유를 통해 총·별로서의 구세·팔세를 구별하는 법을 설하고, 지엄이 대중에게 ‘일미진중함시방’의 의의를 묻고 ‘一’로 답한 사실, 『旨歸章圓通鈔』로부터 의상이 智通에게 깨달음의 징표로 법계도인을 준 사실, 『법기』로부터 지엄이 七十三印을, 의상이 一根本印을 지었다는 사실을 인용하였다.

원리론에서는 『진기』로부터 ‘黎耶微細’는 여래장, ‘成實性’은 일승을 기준으로 말하면 甚深眞性이라는 해석, 『고기』로부터 融順이 入唐한 神琳에게 일승의 아려야식은 白淨無記識·阿摩羅識·性起識·法界安立識·法界因陀羅識이라고 설한 사실을 인용하였

13) 조윤호·사토 아츠시 2001, 39-40.

14) 坂本幸男 1935·1936.

15) 坂本幸男 1956.

다. 또한 『도신장』으로부터 始教, 終教의 변계와 일승의 삼성원융을 인용하였다. 일승은 의타와 변계가 서로 인과가 되어 연기를 이루고, 삼성원융을 시현한다는 해석이다. 『법기』로부터는 妄情에서의 삼성·삼무성의 관계 및 理法에서의 삼성 중도를, 또 理理相卽을 인용하였다.

이와 같이 약전에서는 지엄과의 逸話, 제자에 대한 교화 등을, 원리론에서는 心識說, 三性三無性說, 理理相卽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였다. 『총수록』의 일화에 근거한 의상 약전의 재구성은, 의상에 대한 본격적인 전기가 전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필요 불가결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원리론에서의 『총수록』 활용은 『법계도』의 교설을 주석서에 의지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총수록』은 의상의 사상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助演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상 연구에 있어서 주석서로서의 삼기 활용은 典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高峯了州의 연구

高峯은 1942년 펴낸 저서에서<sup>16)</sup> 『법계도』사상은 『일승십현문』을 「십지품」 현전지의 연기관으로 開顯시킨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즉 해인삼매 속에서 육상으로써 융섭시킨 것이 십지이고, 이것을 현전지 연기관에 의해서 보여준 것이 의상의 근본 교학이라고 부연하였다. 또한 귀국 후 제자들과 나눈 문답이나 교화 내용을 인용하여 의상의 사상을 보강하였다.

첫째로, 『대기』가 전하는 上元元年(674) 皇福寺에서의 의상과 제자들의 문답을 인용하였다. 의상의 사구계(諸緣根本我 一切法源心 語言大要宗 眞實善知識)를 表訓이 五觀釋으로 해석하고, 30구에 배대한 사실이다. 이를 의상의 인연연기 사상이 표훈에 의해 성기무주실상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진정의 三門釋에 표훈이 證分の 입장인 不動建立門을 추가하여 30구를 배석하고, 표훈의 四滿義로 科說한 사실도 소개하였다.

둘째로, 無住 또는 不動實相에 대해서, 『고기』가 전하는 표훈과 의상, 相元과 진정의 문답, 『도신장』이 전하는 상원과 의상의 문답이 있었다는 사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의상이 표훈에게 교설한 ‘나의 범부 오척신이 三際에 들어맞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주이다’와, 상원에게 교설한 ‘一微塵 가운데 시방세계를 머금은 것은 同是無住이기

16) 高峯了州 1942, 194-199.

때문에 그렇다'를 인용하였다.

셋째로, 『고기』가 전하는 大伯山 大蘆房에서의 의상의 十佛 교설에 주목하였다. 이 가운데 '수행자가 심불을 보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화엄경』으로써 안목을 가져야 하며, 『화엄경』은 문장문장 구절구절마다 심불이다'와, 심불 가운데 '오척신'을 언급한 無着佛과 心佛을 인용하였다.

高峯은 둘째와 셋째 인용을 근거로 법계의 身證을 무주에 있어서 체현하는 것을 본령으로 하고, 이것을 圖印에 상징하여 연기관에 의해서 釋成시킨 것이 『법계도』라고 규정하였다. 高峯의 인용 역시 坂本과 마찬가지로 『법계도』사상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고, 오척신과 오관석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 3. 전해주의 연구

전해주는 1992년 박사학위논문(「신라 의상의 화엄교학연구—『일승법계도』의 성기사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1990)을 潤文하여 책으로 펴냈다.<sup>17)</sup> 그는 김지건을 계승하여<sup>18)</sup> 『법계도』사상을 華嚴性起思想으로 규정하고, 이 사상이 의상계 화엄학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사상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총수록』에 대해서는 그 개관과 함께 『법기』·『대기』·『진기』의 순으로 주요 사상과 성기관을 고찰하였다.

『법기』에 대해서는 證分과 法性에 대한 언급이 많으며, '범부의 몸과 마음이 법', '행자의 身心이 法界佛', '신심의 원융함이 법성'이라는 교설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桴身心眞佛의 所有道理를 十種名으로 說示한 것을 十佛로 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의상의 성기사상을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대기』에 대해서는 海印圖를 중심으로 의상의 법성성기사상을 계승하였으며, '三重의 오중해인'을 주요 테마로 인용, 해석하였다. 또한 『대기』가 전하는 표훈의 오관석 중 성기관에도 주목하였다. 성기관을 표출한 곳으로는 심현문 가운데 第九唯心廻轉善成門을 지목하고, '유심'을 十種性起로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기』가 유심을 성기심으로 해석한 것은 『법계도』에서 佛·菩薩을 지정각세간에 넣은 것과 같은 연유로 추정하였다.

『진기』에 대해서는 '성기'라는 술어를 사용하여 『법계도』의 성기사상을 해설한 것으로 보았다. 그 예시로서 十番十二因緣 가운데 제2문 一心所攝故의 일심을 심중성기

17) 전해주 1992.

18) 김지건 1983, 276 ; 좌동 1987, 133.

심으로, 제10문 隨順有盡觀을 성기로 주석하였음을 들고 있다. 그리고 연기의 근본이 되는 일심을 십중성기심이라 보고, 연기의 구극을 성기로 파악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는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총수록』의 성기관에 대하여, 『법계도』의 心·唯心·一心 등이 『법기』·『대기』·『진기』에서 한결 같이 성기심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연기도 구극에는 성기인 것 또한 이견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는 성기사상이라는 특정 주제를, 의상계 화엄의 사상사적 흐름이라는 통시적 시각에서 고찰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전해주는 2014년 『총수록』譯註를 펴내,<sup>19)</sup> 향후 연구의 질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특히 精緻한 校勘을 거쳐 『총수록』 원문의 가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해제를 통하여 『총수록』의 개요, 편자, 서지사항, 구성과 내용을 개관하고, 사상적 특징으로 오중해인, 오척법성, 관법, 구래불을 들고 있다.<sup>20)</sup>

#### 4. 김두진의 연구

김두진은 1995년 당시까지 발표한 의상 관련 논문들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sup>21)</sup> 저서 가운데 ‘제3장 의상의 화엄사상’은 六相圓融과<sup>22)</sup> 中道實際의<sup>23)</sup> 두 주제를 다루었다. 결합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총수록』이 엄연한 주석서임에도 불구하고 본문 내용에서 마치 의상의 직설이나 저작처럼 인용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각주를 통해 출처가 『총수록』임을 밝혔지만, 그 조차도 삼기의 구별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斷章取義式의 인용은 의상계 화엄의 통시적 흐름을 무시한 오류가 될 개연성이 크다.

예를 들어 육상원용 부분에서 “총상과 별상은 佛과 衆生으로 비유되었다”고 서술하였다. 하지만 이는 『진기』의 견해일 뿐이고, 『법기』와 『대기』는 달리 해석하고 있다. 『진기』의 주석만이 의상의 사상으로 치부되고, 『법기』와 『대기』는 제외된 불균형한 해석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일례에 불과하지만 논문의 곳곳에서 이러한 결함이 발견되고 있다. 주석서는 어디까지나 원전 해석에 도움을 주는 참고일 뿐 원전이 아니며, 원전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편찬

19) 저자 미상, 해주 옮김 2014.

20) 위의 책, 19.

21) 김두진 1995.

22) 김두진 1993a.

23) 김두진 1993b.



된 주석서들을 공시적으로 혼용하는 것은 학문적 엄밀성을 저해하는 일이다.

‘제6장 의상계 화엄사상의 전개’ 중 의상의 문도에서는<sup>24)</sup> 表訓, 神琳, 智通, 道身の 활동을 기술하면서 『총수록』을 인용하였다. 표훈에 대해서는 五觀釋, 無住, 四門釋 등을, 신림에 대해서는 一乘十地, 무주, 四生滅釋, 五重總別, 濕過海를, 지통에 대해서는 華嚴觀, 未來佛을, 도신에 대해서는 緣起無性, 西風波東風波, 九人總在一心을 서술하였다. 하지만 신림을 浮石嫡孫으로 표기하면서도, “왜 십대제자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알 수 없다”는 모순된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의상의 문도가 꼭 직제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표훈, 지통, 도신과 함께 신림을 열거한 사실도 모순을 배가시키는 묵시적 요인이 되고 있다.

### III. 균여 사상의 역사적 배경 연구

#### 1. 佐藤 厚의 연구

佐藤 厚는 1998년 균여의 『법계도원통기』를 중심으로 신라고려화엄교학을 연구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sup>25)</sup> 이 논문에서는 신라고려의 화엄교학을 교판론, 中道와 무주, 육상론, 盡不盡을 둘러싼 문제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총수록』 역시 주요 고찰 대상이 되고 있다.

##### 1) 『총수록』 개관

佐藤은 균여의 『법계도』 해석 배경이 된 의상계 화엄교학 問題群의 하나로 『총수록』을 상정하고, 그 형식과 내용의 一覽, 성립에 관한 검토, 인용문헌 일람, 삼기에 대한 해설을 시도하였다. 인용문헌 일람에서는 총 32개 문헌에 대하여 저자명, 生卒年 또는 활동연대, 書名, 본문 중의 서명, 인용회수를 정리하였다. 특히 ‘조선반도’ 찬술 문헌 17종과 중국 찬술 내지 역출 문헌 15종을 구별하였다.

『총수록』에 48회 인용된 것으로 조사한 『법기』에 대하여, 법용은 신림의 제자로서 750년을 전후하여 활동한 인물로 추정하고, 淨影寺 慧遠, 불타삼장, 지엄, 법장, 의상, 상원, 대승연공, 신림 등 14명으로부터의 인용을 분석하였다.

24) 김두진 1993c.

25) 佐藤 厚 1998a.



24회 인용된 것으로 조사한 『진기』에 대하여, 지엄, 법장, 의상 등으로부터 5회밖에 인용하지 않아 저작 시기나 저자의 활동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교판론에서의 自體別教를 교학적 특징으로 보았다.

55회 인용된 것으로 조사한 『대기』에 대하여, 저자의 인명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름 앞에 ‘大’가 붙어있는 인물로 추측하고, 지엄, 법장, 의상, 진정, 표훈, 상원, 신림, 사유, 용길, 질웅, 승업 등 17명으로부터의 인용을 분석하였다. 성립 시기는 9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하였다.

또한 『대기』를 그 이전 신라화엄교학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균여의 교설과 중복된 것이 많다고 보았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하여 異說을 열거하면서 표훈의 견해를 취하는 것, 오중해인설을 교설의 근본으로 삼아 여기에 교판 등을 가미하는 방법을 특징으로 보았다.

삼기의 선후관계에 대해서 『법기』·『진기』·『대기』의 순으로 보았다. 『법기』를 8세기 중엽, 『대기』를 9세기 후반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진기』는 『법기』 이후, 『대기』 이전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7언 30구에 대한 주석에서만 이 순서가 지켜지고 있는 것에 의거한 것이다.

## 2) 인물 및 저작별 문제군

『총수록』에 인용된 인물과 저작에 대하여, ① 의상의 직제자와 그 주변 : 『삼국유사』·『송고승전』·『법장화상전』에 등장하는 인물 14명, ② 신림을 둘러싼 인물 : 직제자인 상원으로부터 배운 일이 있는 손제자 신림과 그와 동시대 인물, ③ 신림 이후 : 신림의 제자 및 그 이후 師資相承의 인물, ④ 사자상승이 명확하지 않은 인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총 46건의 인물·저작을 인물별로는 의상·법장·지엄, 주제별로는 무주·자체불·일심·육상·『십구장』·『화엄경』·기타에 배속시킨 일람표를 작성하여, 어떤 인물이 어떠한 주제를 논했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내용면에서 이를 다시 분석하였다.

의상에 관해서는 『법계도』 연구가 주가 되고, 삼기 외에도 많은 주석이 존재했으리라고 추측하였다. 법장에 관해서는 『오교장』과 『탐현기』 연구가 성행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엄에 관해서는 저작 연구도 행해짐과 동시에, 의상계에만 전해진 智嚴像이 형성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상기 주제 이외에 『십구장』 연구도 성행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3) 教判論

『법기』에 대하여 五教判, 同別二教判을 채용한 것으로 보았다. 오교판에서는 ‘第五圓教’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5원교와 下四教를 구별하였다고 보았다. 동별이교판에서는 원교 아래 삼승별교, 일승별교, 일승동교가 존재하는 구도로 보고, 일승동교와 일승별교·삼승별교·일승동교를 갖춘 원교와의 구별이 선명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법계도』와는 차이가 있고, 『오교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진기』에 대해서도 하사교, 하삼승을 사용하여 원교 내지 일승을 상징한 오교판을 채용한 것으로 보았다. 동별이교에서는 삼승별교, 삼승동교, 일승동교, 일승별교, 일승원교를 설정하고, 다시 소류소목을 설정하여 下機를 이끌고 이해시키는 뜻을 부여했으며, 그 근거에는 교판론의 특징인 자체별교일승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이를 『십구장』의 소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원교와 동교에 대해서는 『법기』와 달리 차별을 두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대기』에 대해서는 오중해인설이 교판의 중심이 되었다고 전제하고, 『법기』, 『진기』와 마찬가지로 제5원교와 하사교라는 오교판 구도를 채용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오중해인의 구도 아래 근기와 가르침을 배대하는 동별교판을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五重海印	根機	教
忘像海印	×	×
現像海印	×	×
佛外向海印	普賢	無住別教 <sup>26)</sup>
普賢入定觀海印	威光·善財	同別二教
普賢出定在心中及現語言海印	所流所目の機	×

이 외에도 『古記』의 九種의 동별이교, 十種의 일승삼승과 『簡義章』의 圓融行布의 四門을 요약하였다. 균여를 포함한 의상계 교판론의 특징으로서 오교판, 遡及指向을 들고, 이러한 특징은 『법계도』를 『오교장』으로 해석하는 데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26) ‘不共別教’의 誤植인 것으로 보인다.

#### 4) 중도와 무주

무주가 『법계도』의 ‘중도와 二邊’의 논리에 기초를 둔 개념으로서 『기신론』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해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표훈의 오관을 有·無의 상대법에 관한 논의로 보고, 무주관에 대하여 『법계도』의 중도가 갖는 兩義性 중의 一方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즉 중도가 상대법의 상위에 있는 제3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가짐과 동시에 상대법의 각각이 그대로 중도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무주는 상대법의 본래적 동일성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一微塵과 十方이 똑같이 무주이기 때문에 ‘일미진중함시방’이 성립할 수 있다는 『도신장』의 의상 교설이 교증으로 인용되었다. 하지만 상대법의 동일성으로서의 무주 자체는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고기』가 전한 상원과 진정의 대화로 예증하였다.

또한 무주가 상대법의 본래적 동일성의 의미를 갖는다면, 상대법과는 별도로 무주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이것이 마치 『기신론』으로 대표되는 여래장연기, 즉 제법의 근원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그로부터 만법이 전개한다는 설과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켰다. 즉 무주는 『법계도』의 중도가 갖는 양의성으로 인해 무주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상대법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법을 들 때에 일체 제법이 거기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여래장연기와는 차별된다고 해석하였다.

#### 5) 육상론

『법계도』에서는 因果不同과 性在中道를 병립하는 이유를 육상을 가지고 해석하였다고 전제하고, 육상의 전거가 되는 『십지경론』 初地の 加分 가운데 어떠한 목적으로 加持가 이루어지는가를 설한 이른바 ‘加的 所爲’에 대하여, 정영사 혜원, 지엄, 법장의 해석에 대한 고찰과 함께 의상의 해석을 추측하였다.

『법기』의 해석에서는 혜원, 지엄, 법장을 구별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九入과 根本入의 관계에 대하여 혜원과 법장의 차이를 파악했다는 점도 명기하였다. 즉 혜원에게는 구입에 의지한 三玄으로부터 十地까지의 行위가 펼쳐버릴 바이지만, 법장에게는 행위가 전부 부처의 불가사의한 법 중에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의상계 화엄에서는 법장을 중시했다고 보았다.

## 2. 김천학의 연구

김천학은 2006년 박사학위논문(『균여의 華嚴一乘義 연구-근기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원, 1999)을 책으로 펴냈다.<sup>27)</sup> 그는 근기론이 화엄학 중심과제로부터 제외된 영역이었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균여 사상을 연구하였다.

화엄학에서는 『화엄경』 이외의 경전들을 어떻게 『화엄경』 내로 포섭할 것인가가 과제가 되었고, 그 해법이 포섭논리로서의 동교 개념이라고 보았다. 동교는 일승 이외의 경전 내지 근기들을 화엄 세계에 포섭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균여도 頓圓一乘이라는 근기론적 교관 내의 다양한 동교 개념으로 모든 근기를 포섭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들이 균여 이전의 의상계 화엄학 전통을 계승, 극복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 1) 一乘圓教義와 同教義

『총수록』의 동별이교를 일승원교의와 세 유형의 동교의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법기』에 대하여 삼승별교·일승별교·일승동교를 다 갖춘 것을 일승원교로 규정한 점을 지적하였다. 법장의 교관에서는 삼승별교를 포함하는 것이 동교의 역할인데, 이와 달리 별교의 영역과 다른 원교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진기』에서도 원교는 삼승별교·삼승동교·일승동교·일승원교의 ‘四敎의 위에 존립한다’는 유사한 입장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동교를 下機를 이끌기 위해 화합시키고, 원교는 모두가 ‘자기 집[화엄]의 진실한 덕목이 되도록 하여 쏠 교설의 근거가 된다고 함으로써 별교, 동교와도 다른 원교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보았다. 원교를 虛空으로 비유하여 大地인 동교, 大海인 별교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총수록』의 동교의를 회심의 기능, 해석방법론의 기능, 근기론적 기능의 세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삼기 모두 회심의 기능을 보이고, 『진기』에서의 동·별교에 의거한 해석방법론의 기능, 『대기』에서의 근기론적 기능을 예시하였다.

### 2) 華嚴機에 대한 논쟁

의상계에서는 『법계도』의 ‘善巧無方 應機隨病非一’을 둘러싸고 화엄기에 대한 다양

---

27) 김천학 2006.

한 견해가 제시되었음을 지적하고 <표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2>

	善巧無方	應機	隨病非一	비고
『법기』	일승(無側義)	하사교인 (성문, 독각, 보살, 熟頓人)		삼승은 隨別機說
『대기』	일승화엄기 (第四重海印의 가: 威光·善財)	원교기 하사교인(病機)		원교기는 잠재적 병기
『진기』	보현기(山王普機)		하사교	‘무방응기’로 읽음

### 3) 所流·所目論<sup>28)</sup>

소류·소목 개념은 『華嚴經內章門等雜孔目』에 처음 등장하며, 方便乘의 동교를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포섭원리에 기준을 둔 용어로 보았다. 용례에 따르면, 소류는 ‘일승으로부터 유출된 것’, 소목은 ‘일승의 명목’이 된다고 정리하였다.

의상계 화엄학에서 류·목개념은 동교적 개념으로 수용되어 지엄 이래의 해석과 다름이 없지만, 교법의 발생을 설명하는 기능적 개념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先代와는 다른 나름의 근기론적 해석 전통을 형성하고, 나아가 교관적으로도 구별된다고 보았다.

『대기』에서는 류·목 개념이 구체화되어, 소류는 다양한 존재들이 근본인 일승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소목은 삼승 쪽에서 보았을 때는 ‘본질적인 것[眼目]’, 일승 쪽에서 보았을 때는 일승에 붙여진 명목으로 규정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류·목이 동교적 역할을 하면서도, 분별의 입장인 오중해인과 관련되는 과정에서 근기론으로 이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진기』에서는 류·목으로 두 가지 기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첫째는 하근기의 ‘사유[計圖]’가 화엄의 법과 동일함을 계시해 주는 것이며, 둘째는 하근기가 自得한 법이 모두 화엄 자체의 의의임을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가운데 후자를 따라 소목이 동교일승도 되고 별교일승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록 소목이 별교일승이 된다고 하지만, 이때의 별교일승은 동교의 구성요소로서의 별교일승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그것은 『진기』에서 望樓의 비유를 들어 동교일승이 별교일승으로 될 때는 소목에 기준을 둘 때이고, 이때 소목은 삼승 이상의 의미로서 교관

28) 김천학 1997에서 既 발표한 내용이다.

적으로는 동교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IV. 특정 주제에 대한 개별 연구

① 木村淸孝는 1973년 『고기』의 五海印說을 고찰하였다.<sup>29)</sup> 의상계 화엄의 특징을 ‘해인’과 ‘다라니’로 요약한 후, 오해인설의 지엄 作에 대해 그의 교판적 입장으로 유추할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지엄에 의해 초교·종교·돈교·外化·內證으로 해인삼매의 種別化가 진행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상계 화엄학의 해인삼매 중시와 독자적 전개는 오해인설을 支柱로 하여 확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자신의 저서에 재수록 되었다.<sup>30)</sup>

1982년에는 『법계도』의 理理相卽論이 한국불교에서 전개된 모습을 탐구하였다.<sup>31)</sup> 이이상즉론을 한국화엄교학의 고유한 모습으로 규정하고, 『일승십현문』사상의 새로운 전개로 간주하였다. 『법기』의 이이상즉 해석은, 이에 포함된 二空으로 볼 때, ‘理’를 基軸으로 하는 화엄교학의 진리관을, 다시 한 번 그것을 생기게 한 대승일반의 空觀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파악하였다. 이 논문은 또 다른 저서에 재수록 되었다.<sup>32)</sup>

1984년에는 『고기』가 전한 의상의 十佛 교설을 포함하여, 지엄과 법장의 십불설을 고찰하였다.<sup>33)</sup> 의상의 십불 해석에서는 주체적이고 철저한 것을 엿볼 수 있으며, 자신의 신체라는 場에서 세계 전체를 파악하고, 또 그 세계 전부를 불신의 역동적인 現成으로 보고 있음을 간취하였다. 또한 의상의 불신설을 실로 스케일(scale)이 큰, ‘自己卽十佛’이라는 형태의 행경십불설로 규정하였다.

② 김상현은 1984년과 1985년에 연속으로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전자는 신라 화엄학승의 인적·사상적 계보와 활동을 고찰한 것으로서,<sup>34)</sup> 균여 저서와 『총수록』이 원천이 되었다. 의상의 10대 제자, 신림과 그 제자들, 법용 등의 『십구장』 저술과 그 제자들, 順應의 해인사 창건 등으로 의상계 계보를 조사하고, 법장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는 비의상계를 상정하였다.

29) 木村淸孝 1973.

30) 木村淸孝 1977.

31) 木村淸孝 1982.

32) 木村淸孝 2001.

33) 木村淸孝 1984.

34) 김상현 1984.



후자는 『총수록』 편찬 시기, 인용 문헌, 역사적 의의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서,<sup>35)</sup> 최초의 문헌학적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총수록』에 균여 저술이 인용되어 있고 13세기 중엽 고려대장경 補遺板으로 입장된 사실에 근거하여, 현존 판본이 10세기 후반 이후 13세기 중엽 사이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또 인용된 『十句章』의 내용이, 13세기 중엽에 활동한 天其가 방언을 삭제한 현행본 『十句章圓通記』와 같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총수록』이 천기에 의해 편찬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sup>36)</sup> 그리고 『법기』를 법음이 8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쓴 것으로, 『대기』를 9세기 중엽 이후 신라 下代에 쓰여진 것으로, 『진기』도 이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두 논문은 자신의 저서에 재수록 되었다.<sup>37)</sup>

1996년에는 『도신장』을 拾遺하고,<sup>38)</sup> 법장의 저술로 알려진 『華嚴經問答』도 의상의 강의록으로 추정되는 『錐洞記』의 異本임을 주장하였다.<sup>39)</sup> 『화엄경문답』이 의상계 문도들에 의해 저술되었을 개연성은 이미 吉津宜英,<sup>40)</sup> 石井公成<sup>41)</sup>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상현은 균여 저술과 『총수록』에 인용된 『추동기』 逸文을 『화엄경문답』과 대조하여 일문 모두가 『화엄경문답』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거의 동일한 문장임을 확인하였고, 『화엄경문답』은 『추동기』의 이본이라고 결론지었다. 2012년에도 논문을 발표하여,<sup>42)</sup> 『화엄경문답』은 『도신장』 일문 및 『법계도』와 함께 의상 연구를 위한 1차 자료인 셈이고, 의상 연구에 이를 활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힘입어 『화엄경문답』 관련 논문이 다수 발표되기도 하였다.<sup>43)</sup> 후일 ‘의상 강의 지통기’라는 저자명을 명시하여 『화엄경문답』을 교감번역하고, 관련 논문들을 재수록하였다.<sup>44)</sup>

③ 佐藤 厚는 박사학위논문 제출을 전후해서 『총수록』을 활용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일부는 既述한 학위논문의 주제별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이어

35) 김상현 1985.

36) 김지건 1973, 41-42에서 1328년頃に 활약한 해인사 승려 體元을 『총수록』 편자라고 보았다; 채상식 1982, 244, 각주 11)에서 김지건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김상현 1991, 38에서 채상식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37) 김상현 1991.

38) 김상현 1996a.

39) 김상현 1996b.

40) 吉津宜英 1983a, 61; 左同 1983b, 243.

41) 石井公成 1985, 167-180; 左同 1996, 274-275.

42) 김상현 2012.

43) 박태원 1996; 좌동 1997; 좌동 1998; 大竹 旻 2000; 석길암 2011; 김천학 2013.

44) 의상 강의 지통기, 김상현 역 2013.



서<sup>45)</sup> 소개를 생략하고, 이외의 논문에 대해서만 정리한다.

1998년의 논문에서는<sup>46)</sup> 의상계 문헌에 보이는 논리로서 ‘중층적 교리해석’을 부각시켰다. 그 예로서 『십구장』 제3구의 ‘오중의 교의’, 『고기』가 전하는 質應의 ‘심중의 일승삼승’과 ‘九種의 동교별교’를 들어 상술하였다. 그리고 중층적 교리해석이 모두 『화엄경』의 근원을 향한 소급지향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佛內向·佛外向·普賢內證·普賢出定이라고 분석하였다.

2000년과<sup>47)</sup> 2001년에는<sup>48)</sup> 의상계의 『기신론』 비판을 고찰하였다. 전자에서는 『대기』가 전하는 의상과 원효의 대론기사가 갖는 의미를 조망하였다. 첫째, 현상의 배후에 추상적인 진리를 설정하는 사고방식을 비판하였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기신론』의 眞如隨緣 對 『화엄경』의 緣前無法, 濕留海 대 濕過海, 一心 대 種種心을 들었다. 둘째, 의상계의 일승설을, 진리를 구체적인 것 가운데서 포착하고 자신의 신체에 일체제법, 삼세간이 갖춰져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一即一切 관계의 중심에 있다는 사고방식이야말로 화엄교학을 體解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후자에서는 崇業의 『觀釋』에서 60권본 『화엄경』 「明難品」을 근거로 설정한 如來藏鏡과 海印鏡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鏡像의 비유’는 원래 중생이 무아면서도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지만, 승업은 『기신론』과 화엄을 차별하는 의상계 사상을 반영하여 여래장경과 해인경을 구별한 것으로 보았다. 즉 여래장경에서 本(鏡, 如來藏)과 末(像, 吾身, 業果, 六道因果)은 일체불가분이지만, 본을 얻으면 말은 존재성을 잃어버리는 데 비하여, 해인경에서는 像(吾身) 자체가 鏡이기 때문에 상은 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교학적으로 본말형 구도를 시설한 『기신론』에 대한 비판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하면서 그것을 무주·무측으로 표현한 의상계 교리와 동일 구조라고 주장하였다.

2001년의 다른 논문에서는<sup>49)</sup> 의상계의 문헌적 특징으로 口傳性和 秘義性을, 사상적 특징으로 無住의 강조, 五尺成佛思想, 『기신론』 비판을 들었다. 구전성·비의성은 논의의 소재를 중국화엄에 두고 독자적 해석을 가하여 전승된 것을 말하며, 그 배경에는 『화엄경』의 본질만 추구하고 他 교학을 고려하지 않는 사상적 배타성이 있음을 상징

45) 佐藤 厚 1994 ; 左同 1995 ; 左同 1996 ; 左同 1999.

46) 佐藤 厚 1998b.

47) 佐藤 厚 2000.

48) 佐藤 厚 2001a.

49) 佐藤 厚 2001b.

하였다. 오척성불사상은 현재 신체에 의한 직접적 진리의 체득으로 해석하고, 그 근처에는 무주라는 존재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사물에서 진리를 직시하는 사유형태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문헌적·사상적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의상계는 『화엄경』 혹은 화엄교학만을 심화시킨 학파로서 『기신론』을 중시하여 여러 교학을 회통시키려 했던 원효나 太賢과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의상계 화엄학의 흐름을, ① 의상과 직제자의 시대(7세기 후반~8세기 중엽), ② 신림·법용의 시대(8세기 중엽), ③ 법용 이후~균여 이전(8세기 후반~9세기 초), ④ 균여의 시대와 그 주변(9세기 후반~10세기)으로 나누어 개관하였다.

2005년에는 의상계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한 신림을 고찰하였다.<sup>50)</sup> 먼저 의상계의 특징으로 자신의 신체가 법계를 구축한다는 실천성, 하나의 개념에 계층을 설정해 의미를 부여하는 중층적 교리해석 등을 열거하였다. 그리고 신림에 관한 자료를 38건 추출하여 행장, 사상, 入唐 記事 순으로 분석하였다. 사상으로는 실천성, 육상, 중층적 교리를 들고 있다. 입당 기사의 문답 내용은 의상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들로서 중국 화엄에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용순에 대해서도 미상이며 교학 레벨에서도 중국 화엄 문헌과는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였다.

④ 김천학은 2013년 의상의 후기사상 중 실천론을 고찰하였다.<sup>51)</sup> 오척신과 나의 미래불이 실천론의 소재로서, 그 근처에는 화엄의 상황에 응하는 연기도리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오척은 155.5cm로 꽤 작은 키이고 어린아이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임에도 오척신으로 통칭한 이유는 『증일아함경』, 『불설관불삼매해경』에 오척 크기의 세존의 모습을 본다는 문구가 나오며, 중국 불교에서 조사들이 일찍이 여래의 모습을 오척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았다. 오척신은 성불의 주체이고 성불한 내 몸이지만 현재의 나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어서, 나의 미래불의 교화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나에 대한 교화의 주체가 나의 미래불임을 강조하는 것은 의상의 독자적 실천체계이고, 나의 미래불의 사상적 연원은 지론사와 열반사로 규정하였다.

2015년에는 『법기』의 사상을 고찰하였다.<sup>52)</sup> 법용은 지엄-의상의 사상을 충실히 계승함과 동시에, 의상과 법장의 동일화 차원의 수용태도를 보이며, 지론종도 중시하였고 지적하였다. 제법을 자기의 身心 혹은 法界佛로 보면서 의상학과 이래 자신의 중시

50) 佐藤 厚 2005.  
51) 김천학 2013.  
52) 김천학 2015.

를 계승하고, 오척보다는 ‘自身心’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고찰하였다. 또 화엄일승에서는 교분에서 설하는 인과가 없다는 것을 ‘無側’이란 개념을 통해 추구함으로써 의상의 증분의 취지를 극한까지 밀고 간 것으로 이해하였다. 육상은 불공방편으로 정의하여 방편에 방점을 찍고, 몸과 마음이 부사의 불법임을 천명하였으며, 법성의 전용으로서 진성은 중생을 수행하게 하는 주요 개념이라고 보았다.

⑤ 박서연은 2003년 『道身章』의 60여 단편을 연구한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하였다.<sup>53)</sup> 논문에서는 내용과 저자, 문헌적 성격, 사상적 특징 등을 고찰하였다. ‘도신’은 人名이 아니고, ‘도신장’ 자체가 書名일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저술연대는 智通이 활동한 8세기 초반 이후부터 균여 이전인 10세기 중반 어느 시기에 저술되었거나, 8세기 중 후반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지통의 저술과 『도신장』을 동일한 계통의 사상을 전하는 문헌으로 보았다. 특히 普法正位說, 十佛說, 一乘의 機熟 부분에서 내용이 유사하다고 파악하였다. 『총수록』에 인용된 『도신장』은 대부분 『일승법계도원통기』에 나오는 내용들로서, 『총수록』편자가 『일승법계도원통기』에 의거하여 『도신장』을 인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의상 사상의 계승부분으로서 수십전유에 대한 과도비유, 須處須에 대한 緣卽法, 구세십세에 대한 사다리 비유, 이이상즉에 대한 五尺의 理事, 구래불에 대한 舊來覺을 들고 있으며, 『법계도』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로서는 ‘법성의 실상적 측면’이라고 해석한 無住, 性起的 觀點이 구체적, 현실적 형태로 나타났다고 해석한 一乘緣起法說을 적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도신장』이 의상의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화엄사상 체계를 구축한 문헌이었다고 보았다.

2003년의 다른 논문에서도 『도신장』의 일승연기법설은 의상의 성기사상을 계승한 것으로서, 한국 화엄 특유의 실천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54)</sup> 또한 『고기』가 전한 의상의 심불설과 『화엄경문답』의 심불설의 차이에 주목하고, 『화엄경문답』이 의상계 문헌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상계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일례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견동의 ‘香象問答’ 인용과 石井公成의 ‘일본적 분위기[和臭]’설 등을 근거로 『화엄경문답』은 『추동기』나 『도신장』 등 의상계 저술을 참조하여 일본에서 저술된 문헌일 것으로 추정하였다.<sup>55)</sup>

2004년 발표한 논문에서는 『총수록』편자를 均여 계통의 화엄학승인 天기일 것으로

53) 박서연 2003a.

54) 박서연 2003b.

55) 김상현 2004, 1-16에서 논증이 없는 추정이라고 일축하고, 『추동기』의 이본이라는 자신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판단하였다.<sup>56)</sup> 『총수록』편자의 천기 가능성은 既述한 것처럼 이미 김상현에 의해 제기되었다.

2013년에는 의상의 ‘五尺身’ 사상을 고찰하여,<sup>57)</sup> 『법계도』의 실천성이 귀국 후 전개된 오척신 사상에서 뚜렷이 나타났다고 보았다. 십불 해석 중 오척신을 언급한 無著佛과 心佛에 대해서, 전자는 대중교화 방편으로서 우리 범부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부처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상의 이상을 보인 것으로, 후자는 자리적 수행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오척신 사상이 무주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찰하고, 이는 法性性起인 우리 몸 바로 그 자체에서 부처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현실 범부의 주체적 자각과 능동적 실천을 강조하는 오척신 사상은 의상의 법성관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창의적인 것으로서, 실천적 전교활동의 사상적 토대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2017년에는 신림의 五重總別說과 지엄의 十重總別說을 비교, 검토하고 해동화엄에 보이는 지엄의 영향을 고찰하였다.<sup>58)</sup> 오중총별설은 십중총별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십중총별설 가운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를 참조하여 오중총별설이 세워졌음을 검토하고, 이러한 영향은 의상계 화엄사상에 있어서 지엄이 차지하는 위상을 말해준다고 강조하였다.

⑥ 석길암은 2010년 의상계 화엄의 禪의 경향을 고찰하였다.<sup>59)</sup> 의상 화엄에 대한 禪宗의 영향은 이미 石井公成에 의해 적시되었다.<sup>60)</sup> 이 선행연구의 시야를 확대하여 의상계 화엄의 근저에 존재하는 ‘선적 경향성’을 밝힌 것이다. 즉 ‘사자상승의 계승방식’과 ‘指事問義의 방법론’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적출하고 이를 고찰하였다. 의상이 제자 지통에게 깨달음의 증표로 법계도인을 내려준 점, 상원과 지통의 깨달음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점, 표훈의 오관석을 인정한 점, 사형제 사이인 상원과 지통의 문답, 사제간인 신림과 대운법사의 문답 등을 사자상승 및 선문답과 유사한 사례로 꼽았다. 지사문의는 북종선 계열로서,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 질문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제자를 상식적인 이해를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려는 방법이다. 의상의 오척신, 『진기』의 微塵法性·須彌山法性·一尺法性·五尺法性, 신림과 대운법사 문답 중의 책상·咽喉·혀

56) 박서연 2004.

57) 박서연 2013.

58) 박서연 2017.

59) 석길암 2010.

60) 石井公成 1994 ; 左同 2003.

끝 등을 들고 있다.

⑦ 최연식은 2016년 그동안 견지되어 온 의상 화엄의 성기적 이해를 전면 재검토하였다.<sup>61)</sup> 『법계도』사상을 성기로 규정하는 것은 문헌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이미 고승학에 의해 제기되었다.<sup>62)</sup> 최연식은 『법계도』의 성기적 이해가 지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법계도』는 지눌의 성기적 입장을 제시했다고 보기 힘들며, 지엄의 법계연기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의상계 화엄학자들의 사상도 부처의 내증 경지에 들어갈 것을 강조하는 것일 뿐, 지눌이나 이통현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성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하였다. 의상 문도들이 사용한 성기라는 용어는 사물의 존재양태를 파악하는 인식의 단계로서, 사물들의 有的 측면과 無的 측면을 동시에 파악하는 중도적 인식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성기의 개념은 표훈의 오관석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南嶽觀公의 견해 등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 V. 쟁점과 과제

상기 연구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총수록』 핵심 문헌인 삼기에 대한 연구는 쏠쏠하다는 편이 있을 정도로<sup>63)</sup> 지금까지의 연구는 의상·균여 관련 보조적 연구,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한 개별연구를 넘어서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상계 문헌들의 사상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삼기와 의상 사상 간의 연계점과 삼기 사이의 사상적 同異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과제로 제기되거나,<sup>64)</sup> 의상의 사상이 순차적으로 후대에 어떻게 계승되었는가 하는 내부의 사상적 발전과정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sup>65)</sup>

일례로 『총수록』에 대하여 가장 넓고, 깊게 연구한 佐藤 厚에게서조차<sup>66)</sup> 균여 연구의 선행 문헌으로 『총수록』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데서 야기되는 한계가 엿보인다. 『총수록』 자체가 논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균여가 중심이 되어 『총수록』을 바라보

61) 최연식 2016.

62) 고승학 2013.

63) 김천학 2015, 226.

64) 석길암 2013, 312-313.

65) 최연식 2002, 24.

66) 佐藤 厚 1998a.



는 사상사적 소급 내지 역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sup>67)</sup> 또한 논의 과정에서 삼기를 구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수록』을 단일 문헌으로 취급하는 경향도 보인다. 즉 대부분의 주제를 ‘의상계 對 균여’라는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고찰한 것이다. 여기서 ‘의상계’는 『총수록』을 포함한 균여 이전의 문헌을 하나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법기』와 『대기』만을 놓고 보더라도 10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등장한 문헌이기 때문에, 문헌들 간의 통시적인 사상사적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공시적 연구에 그치고 말 개연성이 크다.

해동 화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중국 화엄과 상이한 의상계 화엄학의 전체적인 특징을 찾아내려는 기존 연구는 물론, 다양한 학설의 계보 연구 역시 시기에 따른 내부의 사상 변화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주로 의상계 문헌들의 자료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지만, 의상계 화엄학을 전 시기에 걸쳐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정태적 이해방식의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sup>68)</sup>

비록 분량은 적지만 『총수록』에는 편자의 의도 아래 삼기를 포함한 32개의 인용문헌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3백여 년에 걸친 의상계 화엄학이 나름대로 집대성되어 있다. 제대로 된 연구방법론 없이는 체계적인 이해가 결코 쉽지 않은 복잡다단한 문헌임에 틀림없다. 즉 3백여 년의 역사를 縱으로 어떻게 나누어서 볼 것인가 하는 시대구분 문제와, 광범위한 교학을 화엄학 일반에 준거하여 橫으로 어떻게 나누어서 볼 것인가 하는 교학적 分限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는 『총수록』의 실상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연구방법론의 관점에서 佐藤 厚의 시대구분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다. 다만 의상계 화엄학이 『법계도』해석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교학이라는 점에서, 시대구분의 요건으로 해석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의상을 친견한 제자를 사사한 손제자까지가 문답 중심의 직설시대라면, 그 이후인 손손제자부터는 주석서시대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신림 이전과 법용 이후가 시대구분의 일차적 분수령인 것이다. 그리고 주석서시대의 세분 기준은 인물 중심이기보다는 삼기 사상의 면밀한 연구가 전제된 교학 중심이 되어야 바람직하다. 교학적 분함과 함께 성기론과 교판론에 치우친 연구 주제의 편협성도 지적되어야 한다. 특히 『화엄경』의 내적 직관의 견지에서 부처 교설의 진의를 중층적·심층적으로 꿰뚫어보려는 ‘일승론’, 진성의 해석

67) 교판론의 예를 들면, 균여를 고찰한 후 그와의 관계 속에서 『총수록』을 언급하면서 삼기의 오교판에 나오지 않는 ‘제5원교’라는 용어를 擬制한 것은 소급과 역행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68) 최연식 2015, 98.

에서 비롯되어 五海, 無側, 二十二位의 교학으로 전개된 '연기론' 등은 향후 의상계 화엄학의 중요한 연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1차자료

『大華嚴首坐圓通兩重大師均如傳』(『韓佛全』4).

의상 강의 지통기, 김상현 역. 2013. 『교감번역 화엄경문답』, 서울: 도서출판씨아이알.

저자 미상, 해주 읍김. 2013. 『법계도기총수록』,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2차자료

고승학. 2013. 「화엄 교학에서의 연기 개념」, 『불교학연구』 37.

김두진. 1993a. 「의상의 육상원용 사상」, 『한국사상사학』 4·5.

\_\_\_\_\_. 1993b. 「의상의 중도실제 사상」, 『역사학보』 139.

\_\_\_\_\_. 1993c. 「의상의 문도」, 『한국학논총』 16.

\_\_\_\_\_. 1995. 『의상-그의 생애와 화엄사상-』, 서울: 민음사.

김상현. 1984. 「신라 화엄학승의 계보와 그 활동」, 『신라문화』 1.

\_\_\_\_\_. 1985. 『『법계도기총수록』록』, 『친관우선생활력기념한국사학논총』, 서울: 정음문화사.

\_\_\_\_\_. 1991. 『신라화엄사상사연구』, 서울: 민족사.

\_\_\_\_\_. 1996a. 「『도신장』 습유」, 『불교학보』 33.

\_\_\_\_\_. 1996b. 「『추동기』와 그 이본 『화엄경문답』」, 『한국학보』 22-3.

\_\_\_\_\_. 2004. 「『화엄경문답』 재고」, 『동국사학』 42.

\_\_\_\_\_. 2012. 「『화엄경문답』의 연구 성과와 과제」, 『화엄경문답을 둘러싼 제 문제』, 서울: 도서출판 씨아이알.

김지견. 1973. 「신라 화엄학의 계보와 사상」, 『학술원논문집』 12.

\_\_\_\_\_. 1983. 「화엄과 선의 세계」, 『대화엄일승법계도주병서:김시습의 선과 화엄』, 서울: 김영사.

\_\_\_\_\_. 1987. 「지눌에서의 선과 화엄의 상의」, 『보조사상』 1.

김천학. 1997. 「균여 화엄학에서의 소류와 소목의 전개」, 『한국학대학원논문집』 12.

\_\_\_\_\_. 2002. 「일본의 의상연구 어디까지 왔나」, 『의상만해연구』1.

- \_\_\_\_\_. 2006. 『균여화엄사상 연구-근기론을 중심으로-』, 서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 \_\_\_\_\_. 2013. 「의상 후기사상의 실천론-내 몸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35.
- \_\_\_\_\_. 2015. 「법융(法融) 화엄사상의 일고찰」, 『동방학』33.
- 박서연. 2003a. 「『도신장』의 화엄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3b. 「신라 의상계의 저술과 『화엄경문답』의 관련성 연구」, 『한국불교학』34.
- \_\_\_\_\_. 2004. 「천기와 『법계도기총수록』의 편자」, 『천태학연구』 6.
- \_\_\_\_\_. 2013. 「의상의 오척신사상 연구」, 『한국불교학』 67.
- \_\_\_\_\_. 2017. 「신림의 화엄사상에 관한 일고찰-『법계도기총수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29.
- 박태원. 1996. 「의상의 성기사상-『화엄경문답』을 중심으로-」, 『철학』 49.
- \_\_\_\_\_. 1997. 「『화엄경문답』과 의상의 일승·삼승론」, 『한국학보』 23-1.
- \_\_\_\_\_. 1998. 「의상의 화엄적 언어관-『화엄경문답』을 중심으로-」, 『불교와 문화』 4.
- 석길암. 2010. 「의상계 화엄의 선적 경향성에 대하여」, 『한국고대사탐구』 4.
- \_\_\_\_\_. 2011. 「의상의 행로와 사상적 변화에 대한 고찰」, 『불교학보』 59.
- \_\_\_\_\_. 2013. 「한국에 있어서 화엄학 연구의 흐름과 전망」, 『한국불교학』 68.
- 이기영. 1972. 「화엄일승법계도의 근본정신」, 『신라가야문화』 4.
- 전해주. 1992. 『의상화엄사상사연구』, 서울: 민족사.
- 조윤호·사토 아츠시. 2011. 「일본의 한국화엄학 연구동향」, 『일본의 한국불교 연구동향』, 서울: 장경각.
- 채상식. 1982. 「체원의 저술과 화엄사상」, 『한국화엄사상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최연식. 1999. 「균여의 별교일승절대론과 소목·소류의」, 『한국사상사학』 13.
- \_\_\_\_\_. 2002. 「의상 연구의 현황과 과제-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19.
- \_\_\_\_\_. 2015. 「표훈의 일승세계론과 불국사·석굴암-8세기중엽 신라 화엄학 이해 서설」, 『불교학보』 70.
- \_\_\_\_\_. 2016. 「한국불교에서의 성기와 연기-의상 화엄사상의 성기적 이해에 대한 재검토-」, 『불교학보』 74.
- 鎌田茂雄. 1981. 「『釋華嚴教分記圓通抄』の注釋的研究」, 『東洋文化研究所紀要』 84.
- 高峯了州. 1942. 『華嚴思想史』, 京都: 百華苑.
- 吉津宜英. 1983a. 「緣起と性起-譯經から教學形成への一視點-」, 『東洋學術研究』 22-2.
- \_\_\_\_\_. 1983b. 「旧來成佛について-性起思想研究の一視點-」, 『印度學佛教學研究』 32-1.

- 大竹 晉. 2000. 「新羅義湘の唯識說」, 『韓國佛教學SEMINAR』 8.
- 木村清孝. 1973. 「智儼と義湘系の華嚴思想—五海印說をめぐって—」, 『印度學佛教學研究』 21-2.
- \_\_\_\_\_. 1977. 『初期中國華嚴思想の研究』, 東京: 春秋社.
- \_\_\_\_\_. 1982. 「韓國佛教における理理相即論の展開」, 『南都佛教』 49.
- \_\_\_\_\_. 1984. 「十佛說の展開—智儼と義湘・法藏の間—」, 『印度學佛教學研究』 33-1.
- \_\_\_\_\_. 2001. 『東アジア佛教思想の基礎構造』, 東京: 春秋社.
- 石井公成. 1985. 「『華嚴經問答』の著者」, 『印度學佛教學研究』 33-2.
- \_\_\_\_\_. 1994. 「新羅華嚴教學の基礎的研究—義相『一乘法界圖』の成立事情」, 『青丘學術論集』 4.
- \_\_\_\_\_. 1996. 『華嚴思想の研究』, 東京: 春秋社.
- \_\_\_\_\_. 2003. 「禪宗に對する華嚴宗の對應—智儼・義相の場合」, 『韓國佛教學SEMINAR』 9.
- 佐藤 厚. 1994. 「朝鮮華嚴と『十地經論』「加の所爲」の解釋」, 『東洋大學大學院紀要』 31.
- \_\_\_\_\_. 1995. 「均如『一乘法界圖圓通記』と「大記」との關連」, 『印度學佛教學研究』 43-2.
- \_\_\_\_\_. 1996. 「「大記」の五重海印說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44-2.
- \_\_\_\_\_. 1998a. 「新羅高麗華嚴教學の研究—均如『一乘法界圖圓通記』を中心として—」, 東洋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佛教學專攻 博士學位論文.
- \_\_\_\_\_. 1998b. 「義湘系華嚴文獻に見える論理—重層的教理解釋—」, 『韓國佛教學SEMINAR』 7.
- \_\_\_\_\_. 1999. 「義湘系華嚴思想における無住」, 『印度學佛教學研究』 47-2.
- \_\_\_\_\_. 2000. 「義湘系華嚴學派の基本思想と『大乘起信論』批判—義湘と元曉の對論記事の背後にあるもの—」, 『東洋學研究』 37.
- \_\_\_\_\_. 2001a. 「如來藏の鏡と華嚴の鏡—義湘系華嚴教學における『大乘起信論』批判の一例—」, 『印度學佛教學研究』 49-2.
- \_\_\_\_\_. 2001b. 「의상계 화엄학파의 사상과 신라불교에서의 위상」, 『보조사상』 16.
- \_\_\_\_\_. 2005. 「'입당승' 신림의 신라화엄학에서의 위상」, 『불교연구』 23.
- 坂本幸男. 1935. 「新羅の義湘の教學(上)」, 『思想と文學』 1-2.
- \_\_\_\_\_. 1936. 「新羅の義湘の教學(下)」, 『思想と文學』 2-1.
- \_\_\_\_\_. 1956. 『華嚴教學の研究』, 東京: 平樂寺書店.

## A Survey of Studies on *Beobgyedogi-chongsurok*

Seokwang Hwang

(Ph.D., Department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Along with books by Gyunyo, the *Beobgyedogi-chongsurok* (*Collection of Essential Records on the Dhārma Diagram*) is regarded as the original text of the Uisang School of thought. Previous studies on *Chongsurok* can be divided into three areas; first, Uisang and his book, *Ilseungbeobgye-do* (*Single Vehicle Dhārma Realm Diagram*), second, historical background which forms the Gyunyo's thoughts, and third, the others.

Previous surveys of studies on *Chongsurok* have been briefly dealt with in Korea, in contrast to surveys conducted in Japan. Mostly they were surveys of studies on genealogy of the Uisang School of thought. But studies on *Chongsurok* offer a much wider range of themes.

*Chongsurok* is a compilation of the Hua-yen doctrine of the Uisang School of thought, spanning a period of three-hundred years, according to thirty-two books cited. Without considering rigorous deployment of methodology, periodization and doctrinal division,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Chongsurok* systematically.

A chronicle of the Uisang School of thought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periods, namely, the direct-teaching period and the annotation

period. To be specific, the former is supposed to be teaching delivered directly from Uisang to Sillim, who was his grand disciple, and the latter starts from Beobyung, who was the grand-grand disciple of Uisang. Subdivision of the annotation period can be achieved by analyzing the texts titled *Beobgi*, *Jingi*, and *Daegi*, each of which has different authors, and is published at different intervals along the timeline that tracks the evolution of the annotations.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subject of the study is biased toward Doctrinal Classification and Manifestation of Reality theory of the Uisang School of thought. There are important subjects of study left that are Ilseung (Single Vehicle) theory, which inquires into the true meaning of Buddha's teaching on *Avatamsaka sūtra* and Dependent Origination theory, which is developed into Ohae (Five Seas), Mucheuk (No Sides), Isipiwi (Twenty-two grades) doctrines.

**Keywords** : *Beopgyedogi-chongsurok*, Uisang School of thought, *Beopgi·Jingi·Daegi*, Direct-teaching period, Annotation period, Doctrinal division, Single Vehicle theory, Dependent Origination theory

2019년	9월 5일	투고
2019년	10월 6일	심사완료
2019년	10월 7일	게재확정